

加大守須梁玉純彙

菁堤重立碑

永之南有菁堤堤之址有碑焉其文有曰唐貞元十四年戊寅自上委遣兩內史用役夫一萬四千八百餘人築堤立石以記顛末云蓋此堤灌漑三百餘石至今蒙利而往在順治癸巳碑石爲人所折埋沒塵埃人莫不惜其古跡之不傳今茲改立石以識之噫後之人因是碑而思所以不廢是堤則碑之於堤不能無助焉
康熙二十七年戊辰九月日

(碑陰)

碑首唱

方守悅

崔一奉

林彥良

監考朴生



圖 5. 菁堤碑의 調査

永川 菁堤碑

貞元銘의 考察

李 基 白

一、序 言

二、貞元十四年銘의 內容

三、新羅의 水利事業과 菁堤의 修治

四、貞元銘에 나타난 新羅의 中央集權體制와 地方豪族

五、貞元銘에 나타난 新羅의 力役體制

六、結 語

一、序 言

다른 모든 時代에도 그러하긴 하지만 특히 史料가 적은 古代史의 研究에 있어서 새로운 資料의 出現이 갖는 意義는 큰 것이다. 體系 있게 叙述된 古代史 資料들, 예컨대 高句麗의 留記나 新集, 百濟의 書記, 또 新羅의 國史 등의 出現이 거의 可望 없는 듯이 보이는 現在에 있어서, 우리가 期待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金石文인 것이다. 그리고 이 方面에서 近年에 뜻밖의 收穫들이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 여러 新出 資料들 중에서 筆者가 적지 않은 關心을 가져온 것은 南山新城碑와 大邱塢作碑였다. ① 그것은 이들이 모두 新羅社會의 基層을 이루고 있는 村落居住民의 生活相을 보여주는 記錄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과 共通되는 여러 점을 지니고 있는 新金 石文 資料에 접하게 된 것이다.



永川菁堤碑(貞元十四年銘拓本)

新出의 永川菁堤碑는 一九六八年 十二月에 新羅三山學術調査團에 의하여 調査되어 비로소 學界에 알려진 것이다. 그 經緯에 대하여는 鄭永鎬教授의 글을 참조하여주기 바라는 바이지만, 筆者도 우연히 初見의 一人에 끼어 있었고, 또 平素 古代史에 대한 關心이 있었던 인연으로 해서 碑文에 대한 考察의 責任을 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菁堤碑라고 하지만, 이 碑에는 兩面에 刻字가 되어 있으며, 그 兩面의 銘文은 각기 다른 年代의 것이다. 즉 하나는 丙辰年의 干支가 적혀 있는 銘文이오, 다른 하나는 貞元十四年의 絕對年代가 적혀 있는 銘文이다. 前者가 菁堤를 처음 築造한 記念으로 새긴 築造銘이라고 할 性質의 것이라면, 後者는 菁堤의 破損을 修理한 記念으로 새긴 修治銘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碑銘은 서로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들은 함께 考察되어야 할 것이었다. 筆者도 처음 이를 같이 다룰 예정으로 펜을 들었었다. 그러나 丙辰銘은 거의 半 가량의 銘文을 判讀할 수 없는 상태여서 現在로서는 이에 대한 考察이 時期尙早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丙辰銘의 考察은 가까운 將來에 따로이 발표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서는 우선 貞元十四年銘에 대한 考察에 그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碑文의 判讀이나 解釋에 많은 敎示를 하여 준 新羅三山學術調査團 여러분께 感謝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二、貞元十四年銘의 內容

먼저 判讀된 貞元十四年銘의 銘文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㉑ 貞元十四年 戊寅四月十三日 ㉒ 菁堤 治記之謂 ㉓ 沃堤傷故 所內使 以見令賜矣 ㉔ 臥長卅五步 岸 立弘至深六步三尺 上排堀里 十二步 ㉕ 此始爲二月十二日 元四月十三日 此間中了治內之 ㉖ 都合斧尺 百卅六法契 一万四千百冊人 此中典大 角 助役切火押梁 二郡各 人 起使內之 ㉗ 節所內使 上干年 梁 史 湏大舍 加大守 須 梁 玉 純 梁

이 碑銘은 理解를 돕기 위하여 위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몇개의 段落을 지어 보았는데, 순서를 따라서 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㉓는 刻銘의 年月日을 적은 것이다. 貞元十四年 戊寅은 곧 元聖王十四年(七九八)인데, 이 絶對年代를 안다는 것은 이 碑銘의 史料의 價値를 크게 높여주는 것이다. 四月十三日은 修治가 完了된 日字일이다. ㉔ 文段에 의하여 알 수 있다.

㉕는 本碑銘의 表題라고도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만일 貞元十四年銘만을 가리켜서 부른다면 「善堤治記碑」라고 해서 마땅할 것이다. 「之」는 語助辭이고, 「謂」 또한 가벼운 뜻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善堤를 修治하고 記錄하노라」 정도의 뜻이 될 것이다.

㉖는 善堤를 修治하게 된 經緯라고 하겠는데, 이를 解釋하면 「淤」의 뜻이 傷하였기 때문에 所內使를 시키사되「가 될 것이다. 「見令賜矣」는 吏讀이다. 흐르는 河川의 물을 막아 만든 貯水池를 「淤」라는 造字를 만들어 쓴 歷史가 적어도 이 때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收穫이 될 것이다.

㉗는 修治된 堤의 規模에 대한 言及이다. 「玠」字는 뜻이 분명치 않으나 「致」로 분수 있으며 ② 下記와 같은 規模에 이르렀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岸立弘至深」은 堤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짐작되며, 「上排掘里」도 解釋이 어려우나 大邱塲作碑의 경우와 對比해볼 때 堤의 廣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고 생각된다. 이러한 用語들은 土木工事に 관련된 用語로서 흥미있는 言語學的 研究의 對象이 되지는 않을까 한다. 參考로 本貞元銘과 大邱塲作碑에 나타난 規模의 크기를 對照시켜 表를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아진다.

永川 善堤碑 貞元銘

長	35步
岸立弘至深	6步 3尺
上排掘里	12步

大邱塲作碑

長	50步
高	5步
廣	20步

㉘에는 修治 期間이 적혀 있다. 二月十二日에서 四月二十三日까지 二個月 남짓에 完成되었다. 「此如爲」는 「이같이 하기를」의 韓國式 漢文일

것이다. 「元」은 漢字로는 풀이가 안되므로 吏讀가 아닌가도 의심되나 그 조차 분명치 않다. 다만 다행히 이 字가 文章의 解釋에 큰 支障을 주지는 않는다. 「此間中了治內之」는 「이 사이에 고쳐서」가 된다. 「間中」은 「사이에」이며, 「內」는 「어서」의 뜻을 가진 吏讀이다.

㉙는 이 工事に 動員된 人員을 적고 있다. 都合 斧尺이 一三六人, 法功夫가 一四、一四〇人, 助役이 切火·押梁 兩郡에서 각기 數未詳의 同數의 人員이 動員되었다. 助役의 數字는 그 部分이 왜어나갔기 때문에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한 字가 들어갈 정도의 자리 밖에 없다. 그리고 法功夫와 助役 中間에 있는 「此中 大木角」은 그 뜻을 잘 알 수 없다. 마지막 字는 일단 「角」으로 읽었으나 또한 다른 字로 읽을 수 있는 可能性도 있다.

㉚는 이 工事を 일으켰을 때의 擔當官들을 적은 것이다. 「節」은 「다위」로 읽고 執事의 뜻을 가진다. 擔當官은 三名으로서 所內使로서 外位가 上干이요 京位가 乃未인 年이란 人物과 京位가 大舍인 史瀟란 人物이 있었고, 加大守로서는 須梁 出身의 乃未란 京位를 가진 玉純이란 人物이었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檢討는 第四章에서 할 것이다.

三、新羅의 水利事業과 善堤의 修治

善堤碑는 善堤라는 貯水池를 築造 및 修治하고 세운 記念碑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農業에 있어서의 水利施設과 관련된 것이다. 新羅時代의 水利施設에 대하여는 이미 李光麟氏의 「李朝水利史研究」(一九六一)의 第一章「李朝 以前의 水利事業」에 言及되어 있는데, 이제 便宜上 三國史記에 의거해서 新羅의 貯水池 築造에 관한 記錄을 年代表示식으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물론 新羅에 있어서의 築堤에 관한 안전한 記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史料만에 의지하여 新羅의 水利事業 내지 農業技術에 관한 확정적인 結論을 내리기는 힘든 일이다. 더구나 訖解尼師今 二二年(三三〇)의 碧骨池 記事는 이미 여러분이 論及한 바와 같이 新羅의 첫 인지조차 疑問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新羅本紀의 築堤에 관한 七條의

逸聖 二(一四四)、二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 修完堤防 廣闢田野
訖解 三(三三〇)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
訖祇 三(四二九)	新築矢堤 岸長二千一百七十步
法興 一八(五三三)、三	命有司 修理隄防
元聖 六(五九〇)、一	增築碧骨堤 徵全州等七州人興役
憲德 二(八二〇)、二	發使修葺國內隄防
憲安 三(八九九)、四	敎修完隄防勸農

記事는 量的으로 적은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이에 근거해서 新羅의 水利事業에 대한 大勢는 把握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上記 一覽表의 記錄들을 檢討하여 보면 法興王 十八年(五三一) 以前과 元聖王 六年(七九〇) 以後로 時期를 兩大分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그 사이에는 二五〇年 이상의 긴 間隔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空白期間은 比較的 記錄이 豊富할 수 있는 時期이기 때문에 이를 單순한 記錄의 漏落으로 치부하고 싶지가 않다.

法興王 一八年 以前의 時期라고 하지만, 만일 訖解尼師今 二二年의 碧骨池記事를 新羅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멀리 떨어진 逸聖尼師今 一一年(一四四)의 記事를 또 獨立시켜서 생각해도 좋다. 그런데 이 逸聖尼師今代의 記事는 「農者政本 食惟民天」의 修飾語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과연 二世紀 新羅의 사실로 보아야 할지 疑問스럽다. 아마 後代의 記錄이 年代가 올라가서 적힌게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訖祇麻立干 一三年(四二九)과 法興王 一八年(五三一)의 記事를 한테 묶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五·六世紀에 新羅에서 水利에 관한 關心이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이 時期가 新羅에서 稻作이 急速히 發展하던 時期였다는 李春寧氏의 說에 의해서 크게 뒷받침되고 있다. 氏에 의하면 新羅는 四·五世紀까지는 麥類가 主作物이었으나 그 以後 中葉의 新羅에 들어서면 서 벼의 栽培技術이 次第 國內에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⑤. 이를 證明하

기 위하여 氏는 智證王 三年(五〇二)에 新羅에서 牛耕을 시작하였다는 三國史記의 記錄과 아울러 考古學의 成果까지를 提示하고 있다.

위의 檢討로써 五·六世紀를 水利事業을 포함한 新羅 農業의 一大發展期였다고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時期에 해당하는 眞智王 三年(五七八)에 大邱地方의 另冬里村에서 高△塢가 築造되었는데 이 塢가 역시 貯水池라고 한다면 上記 事實의 證明을 補強해 줄 것이다^⑥. 筆者는 이 同一한 時期인 法興王 三年(五三六)에 菁堤가 처음 築造되었으며, 그 사실을 적은 것이 丙辰銘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미 序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別稿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智證王·法興王 이후 六世紀에 들어서면 新羅는 안으로는 國家組織面에 있어서, 밖으로는 領土의 擴張에 있어서 커다란 發展을 하였다. 이러한 發展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었을 것이겠으나 그 중의 하나로써 農業生産力의 發展을 들어야 할 것이다. 過去에 이 집은 거의 注意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國內 經濟力의 뒷받침이 없이 國家의 對外發展이 이루어졌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또 國家의 힘에 의한 水利事業의 수행이 中央政府의 地方統制力을 強化하고 國家組織의 集權的 體制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이 兩者의 聯結性은 이미 李春寧氏가 論及한 바였는데^⑦, 一般史家들에 의해서도 좀더 注目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新羅의 水利事業史에서 注目を 끄는 또 하나의 時期는 元聖王·憲德王·憲安王 등 八世紀末에서 九世紀에 걸치는 時期였다. 이 時期에 堤防의 增築·修葺 혹은 修完의 記事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불과 七個밖에 안되는 水利 관계 記事 중의 三個가 이 時期에 集中되어 있는 것은, 이 時期가 水利事業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대임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本 貞元十四年銘의 菁堤 修治가 元聖王十四年(七九八)이어서 바로 이 時期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新羅의 下代가 韓國史의 發展過程에서 중대한 意義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變化의 社會經濟的 背景에

대하여는 종래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 時期에 水利事業이 활발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社會的變化를 農業生産力의 發展과 연결시켜 理解할 수 있는 실마리를 붙잡게 해준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農業生産力이라고 하지만, 農業耕作技術面의 發展을 말하여주는 資料를 求하기는 힘들다. 그렇더라도 水利事業의 활발한 움직임은 農業生産力의 전반적인 發達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職田에서 祿邑으로 바뀌고, 莊園이 발달하고 하는 등의 貴族들의 개별적인 經濟力의 發展은 이러한 農業生産力의 增大와 관련되는 것이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보면, 永川 菁堤碑의 貞元十四年銘은 八·九世紀에 있어서의 新羅 水利事業의 發展을 代辯해주는 記念物로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時期의 水利事業이 全國의인 규모로 행해졌던 것인만큼 이와 前後해서 修築된 堤堰工事を 기념하는 金石文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四、貞元銘에 나타난 新羅의 中央集權體制와 地方豪族

銘文에 의하면 貞元十四年 즉 元聖王十四年(七九八)에 菁堤를 修築하는 工事を 담당한 것은 所內使였다. 所內使를 누가 任命派遣했는지는 분명히 되어있지 않으나 國王이 하였다고 해서 잘못은 없을 것이다. 菁堤重立碑는 이 貞元銘의 內容을 해석하여 「自上委遣兩內史」라고 하여 國王이 과전하였다고 보고 있다⁸⁾. 그러므로 이 工事は 中央政府의 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점은 全國的인 規模로 勞動力을 동원한 점(文章 參照)과 아울러서 중요시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新羅社會가 中央集權의인 體制下에 놓이게 되는 하나의 理由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地方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築堤와 같은 農業生産에 필요한 工事들을 담당해나갈 能力을 갖게되기까지는, 中央政府에 의한 集權的인 地方統制가 不可避하였다는 하나의 證據로 볼 수가 있다.

本銘文의 끝 부분에는 그때 所內使를 위시한 工事擔當者들이 기록

되어 있다. 이를 一覽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職任	所內使		人姓名	京位
	加太	守		
外位 또는 部	須栗	玉純	史湏	乃京
上干			乃未	乃未
年			大舍	
乃未			乃未	

여기에 나타난 三名을 모두 所內使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의 二名만을 所內使로 보고 끝의 一名을 이에서 제외할 理由는 그의 京位(乃未)가 第二의 人物의 그것(大舍)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같은 所內使라면 官等 順位로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官等이 높은 자가 뒤에 기록되는 것은, 官職이 다른 경우에 限하는 것임은 眞興王巡狩碑를 비롯한 모든 新羅 金石文의 共通點인 것이다. 그리고 李朝 顯宗朝에 重立碑를 세운 사람들의 「自上委遣兩內史」라고 한 兩內史가 곧 兩所內使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그들의 解釋과도 一致한다. 그러므로 이 修治工事は 두 명의 所內使가 주로 擔當하였고, 여기에 加太守가 參與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所內使는 어떤 性格의 것이었을까. 所內使라는 官職은 三國史記의 職官志를 비롯한 다른 어느 記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만일 굳이 比較를 한다면 日本 正倉院 所藏 新羅帳籍에 나오는 內視令과 혹은 비슷한 存在일지도 모르겠다. 兩者가 다 中央에서 地方으로 轉되는 行政보다는 特殊職任의 官職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對比가 可能하기는 하다. 그러나 內視令이 職田을 가지는 常任職인데 대하여 所內使는 臨時職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對比도 否定的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 銘文에 나타난 것만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데, 우선 可能한 解釋은 國王에 의하여 任命되어 일정한 目的을 띠고 地方으로 派遣되는 臨時職이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所內使에 임명된 사람은 上干·年·乃未와 史湏·大舍였다. 上干은 外位 第六等에 해당하는 官等이다. 外位는 村主를 비롯한 地方

豪族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는 中央貴族들이 京位를 가지는 것과 對比되는 것이며, 위의 上干은 京位の 大舍와 相等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京位와 外位는 同一한 人物이 同時에 가질 수 없는 平行하는 別個體系였던 것이다.

그런데 本 貞元銘에 나타난 所內使의 一人인 年은 上干이라는 外位를 가짐과 동시에 乃未(奈麻)라는 京位를 또 지니고 있는 것이다. 筆者가 아는 限 이리한 예는 이것이 처음이며 따라서 우리의 注目을 끌게 되는 것이다.

三國時代의 新羅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京位와 外位는 엄격히 區別되어 있었다. 그런데 統一 뒤에는 應당 外位를 받아야 할 地方의 豪族들이 京位를 가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大中十年 즉 文聖王十八年(八五六)에 鑄造된 靈興寺鐘銘에는

上村主·三重沙干·堯王

第二村主·沙干·龍△

第三村主·乃干·貴珠

등이 나타나는데, 地方의 村主인 堯王·龍△·貴珠 등 三名이 모두 京位인 沙干(沙痕)·乃干(及干·及痕) 등을 받고 있다. 이것은 地方豪族의 典型的인 存在인 村主가 京位를 받고 있는 뚜렷한 例가 된다. 그러나 村主뿐 아니라 地方豪族들이 京位를 받고 있는 例는 統一을 전후한 時期부터 增加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趨勢 속에서 外位와 京位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위래 上干은 村主보다 낮은 地位의 地方豪族에게 주는 것이었다. 昌寧眞興王巡狩碑나 南山新城碑에 나타난 村主는 대개 述干·選干 등의 外位를 받고 있다. 그리고 選干 바로 아래인 上干은 城使·匠尺·作上人 등이 받고 있으며, 이들은 村主 밑에서 일하는 工事的 分擔責任者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貞元銘에 나타난 年이란 人物은 村主 다음가는 地方의 有力者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村主였다면 外位로써가 아니라 村主로써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年은 村主 다음가는 地位에 있는 人物이었기

때문에 上干이란 外位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年이 이미 乃未라는 京位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로써 足하게도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外位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그가 地方豪族임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上干이 원래 京位로는 大舍에 해당하는 것임은 위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의 年은 大舍보다 하나 위인 奈麻의 京位로 되어 있다. 이 점도 地方豪族勢力的 地位가 일반적으로 上昇해가고 있는 趨勢를 나타내는 증거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이 같이 地方豪族 중의 한 사람이 王命을 수행하기 위하여 中央에서 所內使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꼭 의미가 크다. 아마 年은 靑堤의 所在地인 切火郡(永川) 出身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음 章에서 언급할 것과 같이 全國의 人力役 動員에 의하여 행해지는 工事が 실질적으로 그 地方의 豪族 責任下에 遂行되었다는 結論을 얻는 셈이다. 地方豪族들이 中央政府의 集權體制를 이용하면서 그 독자적인 勢力을 퍼나가던 社會的인 現實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王權을 중심으로 한 中央政府의 權力和 地方豪族과의 사이에 介在하는 對立과 妥協의 미묘한 關係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所內使로 임명된 다른 한 명은 史湏大舍였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두가지 解釋이 可能하다. 하나는 史를 官職名, 湏를 人名, 大舍를 周知의 京位로 보는 것이다. 三國史記 職官志에 의하면 史라는 官職은 中央政府의 거의 모든 官府에 있는 最下의 官職이며, 京位로는 第十七等 先沮知(造位)로부터 第十二等 大舍까지 임명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의 湏는 京位가 大舍이며 이것은 위의 規定과 符合하고 있다. 이 같이 湏를 官職이 史요 京位가 大舍인 人物로 본다면 그가 地方豪族인 年과 더불어 所內使였다는 사실이 꼭 흥미있어진다. 이것은 地方工事に 있어서의 地方豪族과 中央勢力과의 聯合의 形態의 表現이 될 것이다. 그리고 地方豪族보다 낮은 地位를 가진 中央貴族이 같은 任務를 띠고 同時에 所內使였다는 것은 역시 이 時期에 있어서 地方豪族勢力的이 擡頭하는 社會的 大勢를 말하여 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湏를 中央貴族으로 보는 경우에 應당 적혀 있어야 할 部名이 빠

저 있는 것이 이상하다. 이점을 감안해서 다른 解釋을 피하여 본다면 史 渾를 人名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도 年과 같이 上干이란 外位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所內使라는 官職은 되풀이 해서 적지 않는 것이 金石文의 通例로 되어 있지만, 上干은 人物이 달라지면 거듭 적는 것이 慣例였다는 점에 難點이 있다. 같은 上干이 하 나는 乃未요 하나는 大舍였다는 점도 미심스럽기는 하나 이것은 그럴 수도 있을 법하다. 하여튼 이 경우에는 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結論을 얻게 되므로 새로운 解釋을 添加할 餘地가 없게 된다.

이같이 위의 두 해석은 一長一短이 있으나 筆者는 後者가 더 可能性이 크지 않나 한다. 여하튼 史渾大舍의 存在는 上干年乃未의 커다란 重要性으로 해서 이 貞元銘에 있어서서 그 빛이 희미하게 된 느낌이다.

끝으로 所內使와는 다른 加大守에 대해서 檢討를 해야 하겠다. 우선 大守는 곧 郡太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加」字를 더한 것은 그가 正式 郡太守인 것이 아니라 원은 다른 職位를 가진 것을 임시로 郡太守格으로 삼아서 과전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須嚈은 곧 沙梁일 것이다.

이로써 玉純은 中央貴族임을 알 수가 있다. 郡太守의 京位는 三國史記 四十 職官志 外官條에 舍知에서 重阿浪에 이른다 하였고, 또 玉純이 乃未(奈麻)인 것은 이 規定에 符合하는 셈이다.

地方豪族 出身 所內使에 대하여, 加大守의 職位로 修治工事に 參與한 沙梁部 玉純乃未의 存在가 갖는 意味는 그것이 中央의 集權의 세력과 地方의 豪族 세력과의 聯合 내지 相互 制約의 하나의 表示였다는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어느 편인가 하면 地方豪族勢力의 優勢로 기울어져가는 面을 看取할 수 있다고 믿는다.

五、貞元銘에 나타난 新羅의 力役體制

종래 우리가 알고 있던 新羅의 力役 動員에 대한 가장 귀중한 史料는 南山新城碑였다. 南山新城碑에 대하여는 이미 秦弘燮氏의 상세한 考察이 있으므로 이를 參照하여 주기를 바라지만, 여기서는 菩提碑에 나타난 力役動員體制를 理解하기 위하여 필요한 部分에 대하여 잠깐 言及코

자 한다.

첫째로는, 이미 秦弘燮氏도 言及한 바와 같이, 南山新城의 築造는 全國的인 규모의 動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울이었던 慶州를 위시하여 南으로는 慶南 咸安, 北으로는 慶北 尙州 등에 比定되는 여러 地域에서 動員되고 있다. 이는 二百餘 分團이 참가하였고, 따라서 二百餘個가 세워졌으리라고 추측되는 南山新城碑 現在 발견된 四個의 新城碑에 나타난 것만으로 인은 結果이다. 그러므로 모든 新城碑가 발견되는 경우에 이는 더 뚜렷해지겠지만, 全國的인 규모의 動員이었을 것임은 疑心이 없다.

둘째로는 動員이 地方에서는 村單位, 서울에서는 里單位로 행하였다 는 사실이다. 第一碑의 경우에는 阿良村을 主軸으로 奴舍村 營姑村이 참여하였고, 第二碑의 경우에는 阿大兮村을 중심으로 여기에 仇利城 答大支村이 참여하고 있으며, 第三碑의 경우에는 啄部の 主刀里가 이를 담당하였다. 이같이 村과 里가 力役 動員의 單位가 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중요한 知識에도 불구하고, 力役 動員의 體系的인 組織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缺陷을 補充하여 주는 것이 바로 本菩提碑의 貞元銘인 것이다. 菩提碑의 出現은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以下の 考察을 위하여 우선 貞元銘에 나타난 動員人員 一覽表를 제시하여두는 것이 便하겠다.

斧	尺	一三六人
法	功	一四、一四〇人
助	切	?
役	火	?
	梁	?
	郡	人
	郡	人

一覽表에 따라서 順序를 밝아 설명을 하면, 먼저 斧尺은 아마 도끼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技術을 가진 人員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平常時에 어떤 고정된 組織體에 속하여 있었는지 어떤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

러한 可能性을 인정해서 좋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筆者로서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렇더라도 이 斧尺은 일정한 技術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當時의 技術을 이해하는 한 資料가 될 것이다.

全國의 인 力役 動員의 組織이란 면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의 法功夫이다. 法功夫는 法幢 소속의 功夫라는 뜻일 것이나 疑心 없다. 法幢은 三國史記 四十職官志 下 武官條에 나타나 있으며, 이미 井上秀雄氏에 의하여 대한 研究가 행해진 바 있다. 氏는 上記 武官條에 나오는 軍官들 중에서 法幢이란 單語가 붙는 것들을 골라내어 다음과 같은 一覽表를 작성하고 이를 土臺로 氏의 見解를 발표하였다.

法幢軍團武官表

部隊名	軍官名											
	百	京餘	小京餘	外餘	驛	衝	石	徐	外	弩	軍	郵
法幢	卅	30	15	16	52	6	12	12			15	
法幢	監	30	15		68	12	12	12			45	
法幢	頭上								45	102	45	
法幢	火尺		15		102	11	18	18			45	30
法幢	辟主								45	306	135	

이 중에서 外餘甲幢과 外法幢의 地方村落을 基盤으로 成立하고 있는 것으로 본질에는 비록 言語學의 解釋에 未審한 사람이더라도 異議가 없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 점은 正倉院의 新羅帳籍에 의하여 더욱 確證이 되고 있다. 즉 薩下知村籍에서 戶를 기록하여

合 孔烟十五 計烟四 餘分二 此中 仲下烟一 餘字 下上烟二 餘字 下仲烟
五並餘字 下下烟六 以餘字五 法私一

라고 하였다. 여기 나오는 餘字와 法私에 대하여, 旗田巍氏는 法幢軍團 중의 「餘」 혹은 「法」字가 붙는 部隊에 징발되는 烟이었다고 보고 있다.

法幢軍團이 村落을 基盤으로 하고 조직된 것이었다는 구체적인 資料가 되고 있다.

그러면 法幢은 어떠한 機能을 가진 部隊였던 것일까. 적어도 元聖王代에는 이것이 勞動部隊의 구실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法幢軍團 중의 外餘甲幢과 外法幢은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 점을 밝혀준 것이 本貞元銘인 것이다. 즉 貞元銘에는 法幢 소속 軍人을 法功夫라고 하였는데 功夫는 곧 工夫이며 勞動人夫의 뜻이다. 功夫라는 用語에서 뿐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靑堤라는 貯水池의 修治에 動員되었다는 점에서도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法功夫가 全國의 인 규모로 動員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은 一四, 一四〇名에 이르는 많은 人員數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더구나 助役으로는 切火와 押梁의 二郡에서 극히 적은 數의 人員이 動員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이들 法功夫가 中央政府의 命에 의해서 動員되는 部隊였다는 점이 注目되어야 한다. 法功夫는 國家의 公的인 軍事組織을 통하여 命令되고 動員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法幢 소속 功夫가 全國의 인 규모의 勞動力 動員組織이었던 데 대해서, 助役은 切火郡 및 押梁郡의 二郡에서 動員되고 있다. 切火郡은 곧 지금의 永川으로서 靑堤가 所在하고 있는 郡이며, 押梁郡은 지금의 慶山으로서 永川의 隣接地인 것이다. 이것은 助役이 工事が 행해지는 現場이 있는 郡과 그 隣接地에서 動員된 것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中央政府에 의해서가 아니라 地方의 郡에 의해서 動員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助役은 그 數가 그리 많지가 않았다. 앞서의 計算에 의하면 二郡에서 각기 기껏해야 三百名 정도로 되었다. 數로 보아서 文字 그대로 助役이었던 셈이다. 이 助役도 어떤 體系的 組織網 속에 編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알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보면 前章에서 言及한 修治工事的 擔當者였던 所

內使와 加太守는 일단 法功夫와 助役을 分擔指揮하였다 고 보아서 좋을 것 같다. 所內使로 임명된 二名이 모두 地方豪族 出身으로 보이고 加太守는 中央貴族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判斷은 주저되는 점이 없지않다. 그러나 所內使라는 職責名이 中央에서 과견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加太守는 地方官으로서의 性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所內使가 法功夫를, 加太守가 助役을 각기 指揮하였다고 보고 싶다.

高麗時代에도 軍事組織 속에 勞動部隊가 있어서 이를 一品軍·二品軍·三品軍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 一品軍은 中央政府의 命으로 動員되는 것이었고, 一·二·三品軍은 村留하여 地方의 力役에 動員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勞動部隊의 先行的인 것이 新羅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미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 貞元銘에 나타난 法功夫는 高麗의 一品軍에, 그리고 助役은 二·三品軍에 줄을 그어 볼 수 있는 存在가 아닌가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勞動部隊의 組織은 新羅統一期가 絶頂期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新羅가 農民의 勞動力에 대한 강한 慾求를 가지고 있었다는 하나의 구체적 증거로서 新羅社會를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六、結 語

新羅時代의 靑堤碑 옆에는 康熙二七年 즉 肅宗十四年(一六八八)에 세운 靑堤重立碑가 서있다. 이에 의하면 靑堤碑는 順治癸巳年 즉 孝宗四年(一六五三)에 두 동강으로 갈라져서 먼지 속에 埋沒되어 있었다 한다. 이에 方守悅·崔一奉·林彥良 등 三人이 首唱하고 朴生이 監考하여 동강난 碑石을 맞추어 다시 세웠다. 지금도 그 동강났던 자리를 알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 뜻을 傳하기 위하여 따로 重立碑를 세웠던 것이다. 重立碑의 끝머리 부분에는

噫 後之人因是碑思所以不廢是堤 則碑之於堤 不能無助焉
이라고 하였다. 靑堤와 그 碑를 아끼는 精誠이 잘 드러나 있으며 그들의

의 所願과 같이 靑堤는 現在도 貯水池의 구실을 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李朝 後期는 또 하나의 水利事業의 發展期이며, 이 重立碑는

그런 면에서도 좋은 記念物이 되지 않을까 싶다.

肅宗十四年에 重立碑를 세운 사람들은 丙辰銘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던 듯하여 오직 貞元銘의 內容만을 紹介하고 있다. 아마 靑堤碑가 두 동강이 났을 때에 貞元銘은 밑으로 땅에 묻히어 이끼가 덮여 있었으나 丙辰銘은 워낙 얇게 刻字한 데다가 위로 놓여져 이끼가 두껍게 끼었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이들 重立者들의 功으로 靑堤碑의 破壞가 防止되고 우리가 다시 이를 對할 수 있게 된 사실은 길이 기억되어 마땅한 美談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제 우리는 丙辰銘도 읽어보게 되기는 하였으나 筆者도 重立碑를 세우던 사람들과 같이 여기서는 우선 貞元銘에 대한 考察에 限하였다. 筆者는 여기서 銘文의 解讀과 아울러 그 內容이 갖는 歷史的 意義를 考察하는데 專力하였다. 귀중한 新出史料를 다룸에 있어서 많은 未備點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不足한 점은 叱正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더라도 워낙 이 史料가 農業生産力의 發展이라든가, 政治的 社會的인 支配勢力 相互間의 關係라든가, 이들에 의한 村落民의 支配組織의 一面이라든가 하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던져주는 직접적인 指示나 간접적인 示唆가 중요한 것이었던만큼, 자연히 우리의 關心은 新羅社會의 中心이 되는 問題들까지 빈지어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 靑堤碑의 出現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와 같은 새로운 資料의 探索과 또 新羅史의 많은 未開拓 分野에 대한 關心이 助長된다면 多幸이라 하겠다.

(註)

一、이 두 金石文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代表的 研究가 있다.

秦弘燮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歷史學報 二六、一九六五)

任昌淳 「戊戌塙作碑小考」(史學研究 一、一九五八)

二、처음 「全」이 아닐까고도 생각하여 보았으나 任昌淳氏의 敎示에 따라 「致」로 보고자 한다.

三、但 康熙二七年(肅宗十四年、一六八八)에 세운 靑堤重立碑에는 役夫 一四八〇〇餘人을 動員했다고 적혀 있다. 當時 사람들은 現在 不明인 이 글자를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이 數字를 밑미로 하여 推測을 내릴 수 있지는 않음을
 까 해서 다음과 같은 計算을 하여 보았다.

$$x = \frac{14800 - (136 + 14140)}{2} = 262$$

그러나 한 자 밖에 들어갈 餘裕가 없는 자리에 이러한 數字는 適合치가
 못하다.

四、今西龍「全羅北道西部地方旅行雜記」(百濟史研究, 一九三四) 四六〇~四六

一面 및 李光麟「李朝水利史研究」(一九六一) 三面 參照。

五、李春寧「李朝農業技術史」(一九六四) 十五~十八面

六、任昌淳氏도 過去の 자신의 說과는 달리 지금은 大邱場作碑가 貯水池의 記
 念碑라고 믿고 있다고 筆者에게 전하여 주었다.

七、李春寧氏도 前記「李朝農業技術史」에서「新羅의 農業技術의 그 當時로서
 는 상당히 先進된 段階를 전고 있었다는 것은, 農業生産手段인 土地·勞力·
 道具의 調和와 統一에 戮力用心한 集權力의 현상은 마땅」이었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十八面)

八、重立碑를 세운 사람들은 丙辰銘에는 입체 말이 없이 다만 貞元銘에만 言
 及하고 있으므로 이 引用文은 貞元銘에 관한 것이다.

九、三國史記 四十 職官志 下 外官 外位 條에「上干視大舍」라고 하였는데, 지
 금 理解에 便케 하기 위하여 京位와 外位의 對比表를 제시하여 둔다.

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位	伊	伊	通	波	大	阿	一	沙	殺	大	奈	大	小	吉	大	小	通
外	尺	尺	珍	阿	吉	伐	奈	奈	奈	舍	舍	舍	舍	士	鳥	鳥	位
位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食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外																	
位						</											